■ 편집후기(編輯後記)

◆이번 『日本語學研究』62집 발행을 끝으로 10대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됩니다. 편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옥고를 투고해주시고 심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10대 편집위원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영남(고려대) 신임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日本語學研究』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李)

◆ 이번 62집을 끝으로 10기 편집위원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학회지가 나오는 과정, 편집 등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62집은 일본어교육, 사회언어학, 화용론, 의미론, 음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어 회원님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연구 성과를 보내주신 여러분, 꼼꼼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편집업무를 위해 많은 신경을 써 주신 편집위원회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鄭)

◆ 새로 편집위원회 실무 구성원이 되신 분들과 인수인계를 하며 그분들의 불안과 걱정에 흔들리는 눈빛이 2년전 그날의 저희와 너무나 똑같아 묘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지만 주위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日本語學研究』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辛)

◆ 학회의 편집 일이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늘 솔선수범해 주신 편집위원장님과 니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협력해 준 편집위원들 덕분에 함께 일하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술지의 발행과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나카마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었기에 차기 편집위원분들께도 분명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고 성원을 보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金)